

## 정답

1	④	2	①	3	③	4	④	5	⑤
6	④	7	③	8	③	9	①	10	⑤
11	①	12	②	13	⑤	14	①	15	③
16	②	17	③	18	①	19	④	20	③
21	②	22	⑤	23	③	24	⑤	25	①
26	④	27	②	28	⑤	29	②	30	①
31	④	32	④	33	②	34	④	35	②
36	④	37	②	38	③	39	①	40	⑤
41	④	42	④	43	⑤	44	⑤	45	②

## 국어 영역

## 해설

\*\* 화법 \*\*

### 1. [출제의도]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사학자는 ‘팔만대장경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진행자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고 있지도 않고, 용어의 개념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① ‘강화도조약 체결 140주년’이라는 화제 선정의 배경을 밝히며, ‘강화 지역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안내하고 있다. ② 사학자는 ‘강화도조약’의 정확한 명칭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사학자는 강화가 ‘민족의 자주정신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 ⑤ 진행자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대담의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2.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표현하기

㉠은 ‘강화’를 ‘증인’으로 의인화하였으며, ㉡은 대담의 핵심 내용인 시대별 강화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

### 3.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 파악하기

‘학생 2’는 ‘학생 1’의 질문에 대해, 발표 주제를 제안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 4. [출제의도] 발표 내용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학생 1’은 새 우편 번호의 개편 이유와 시행 시기, 구성 방법, 장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우편 번호의 사용 기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 5. [출제의도] 발표 내용 평가하기

‘학생 1’은 청중의 배경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으나, 발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① 새 우편 번호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그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② 지도를 활용하여 새 우편 번호의 구성을,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새 우편 번호에 대한 정부의 홍보 방법을 말하고 있다. ③ 발표에 활용한 지도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④ 주어진 시간을 고려하여 인터뷰 자료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 작문 \*\***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파악하기**

개요대로라면 ㉔은 초고의 3단락에 제시되어야 하지만 그 부분에는 도시 광산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고, ‘폐전자제품에서의 금속 추출 기술 개발’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를 통해 채굴 가능한 자원이 점점 고갈될 것이라는 점을, (나)를 통해 폐전자제품에 함유된 희소금속의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시 광산의 필요성을 언급한 둘째 단락에 (나)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면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금속 자원의 효율적 추출, 희소금속 확보라는 도시 광산의 필요성에 대해 요약했고, 폐전자제품 수거에 대해 관심을 갖자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9.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학생은 처음에는 선생님의 말씀인 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진로 체험 활동을 통해 ㉒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다.

**10.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㉓ 앞에 있는 문장은 학생의 질문이고, ㉔는 그에 대한 대답이므로 둘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번번히’가 아니라 ‘번번이’가 맞는 표현이다. ② ‘소개하다’라는 표현으로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므로 사동 표현이 필요하지 않다. ③ ‘여간’은 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한다. ④ 삼국 시대의 특징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이 글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다.

**\*\* 문법 \*\***

**11.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적용하기**

‘깁아’는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아’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제13항에 따라 [까까]로 발음해야 한다.

④, ⑤의 발음은 제13항과, ②, ③의 발음은 제 14항과 관련된다.

**12. [출제의도] 단어의 품사 구별하기**

㉑ ‘이’는 명사 ‘사과’를, ㉒ ‘그’는 명사 ‘책’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㉓ ‘여기’는 장소를 나타내는 대명사이다. ㉔ ‘이리’는 용언 ‘오게’를, ㉕ ‘그리’는 용언 ‘보내겠습니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13. [출제의도] 서술어의 자릿수 파악하기**

‘철수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에서 ‘잡았다’는 주어(철수는)와 목적어(물고기를)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부사어 ‘많이’는 생략 가능한 문장 성분이다.

① ‘콩쥐가’와 ‘어머니는’은 서술어 ‘만들었다’의 주체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필요한 성분이다. ② ‘옷을’과 ‘아들을’은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생략할 수 없다. ③ ‘의사로’는 부사어라도 ‘~을 ~(으)로 만들다’는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예쁘게’는 ‘만들었다’를 꾸며주는 부사어로 생략이 가능하다. ④ ‘친구는 내 손을 살며시 잡았다’에서 ‘잡았다’는 주어 ‘누가’, 목적어 ‘무엇을’이라는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14. [출제의도] 올바른 한글 맞춤법 파악하기**

② ‘-든지’가, ③ ‘어떡해’가, ④ ‘바라’나 ‘바란다’가, ⑤ ‘넉넉지’가 올바른 표기이다.

15. [출제의도] 의문문과 청유문의 공통적 기능 이해하기

‘잠깐, 내가 안경을 어디다 뒀더라?’는 의문문이지만 청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B’의 대답을 고려했을 때, ‘A’의 말은 혼자 있는 상황에서 화자가 안경을 찾으면서 하는 혼자말이다.

① 조용히 해 줄 것을, ② 창문을 열어줄 것을, ④ 비켜 줄 것을, ⑤ 차를 세워줄 것을 청자에게 요청하는 문장이다.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 ‘보뫼’는 체언 ‘뫼’과 조사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이어적기를 한 것이다.

**\*\* 인문 \*\***

□ 출전: 이인제, <셸러의 감정 윤리학>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셸러의 인격 개념과 이러한 셸러의 인격관이 도덕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① 1문단에서 인격에 대한 칸트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셸러가 말하는 가치는 선형적이며 위계질서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3, 4문단에서 셸러는 인간의 감정이 가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셸러가 칸트의 인격 개념을 이성적이고 지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셸러는 가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감정이고, 그러한 감정작용의 통일체가 인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감정과 인격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9.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셸러는 가치를 지향하는 감정이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영희가 A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이 가치를 파악하는 감정이 선천적으로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셸러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

① A는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지닌다. ② 비싼 가격이라는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B를 선택한 것은 높은 가치로 이끄는 감정에 의한 것이며 이는 선을 실현한 행동이다. ③ 3문단에서 인격은, 감정작용을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여 선을 실현할 수도 있고, 낮은 가치를 선택하여 악을 실현할 수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A와 B 중 어떤 것을 선택해도 이는 모두 인격의 감정 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높은 감정은 높은 가치를 선택하기 때문에 영희가 갈등을 하지 않고 B를 선택한 것은 높은 감정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예술 \*\***

□ 출전: 진중권, <교수대 위의 까치>

20.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 3문단을 통해 르네상스 이래로 사실적 재현 방식이 유일한 가치로 내려온다고 하였으므로 당시의 화가들은 이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1, 2문단을 통해 카로토 이전의 화가들은 아이가 그린 그림을 주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을 통해 사진의 등장 이전에 회화에서의 재현 기술은 거의 완성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의 등장 때문에 당시 화가들의 재현 기술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2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은 대상의 사실적 재현을, ㉡은 화가들의 표현 의지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 입장에서 <보기>는 유년기의 화풍으로 그린 작품이므로 보이는 대로 재현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은 재현 기술을 중시하므로 <보기>의 작품을 미숙하다고 볼 것이다. ③ ㉡은 <보기>와 같은 작품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볼 것이다. ④ ㉡은 화가의 표현 의지를 중시하므로 표현의지가 작품에 드러나는지 주목할 것이다. ⑤ 5문단에서 현대회화의 과제가 표현으로 바뀌었으며, 이때 중요한 것은 순수함과 솔직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의 문맥적 의미는 '원래의 있던 곳으로 다시 가거나 다시 그 상태가 되다.'이다.

①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다.', ②는 '물체가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여 가다.', ③은 '차례대로 순번을 옮겨 가다.', ④는 '일이나 형편이 어떤 상태로 진행되어 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사회 \*\***

□ 출전: 덴묘 시계루, <손익분기점을 배우자>  
최정표, <생활 경제학>

## 23. [출제의도] 내용의 서술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회계학적 이윤과 경제학적 이윤, 손익분기점과 같은 경제학적 개념을 철수의 제과점 창업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24.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관계 파악하기

㉠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을 뺀 것이며, ㉡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까지 뺀 것이다. 3문단을 통해 정확한 이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계학적 이윤보다는 경제학적 이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총수입은 명시적 비용과 회계학적 이윤의 합이므로, 총수입의 변화가 없을 때 명시적 비용이 줄어들면 회계학적 이윤은 늘어난다. ② 제과점 운영을 위해 직접 소비한 비용은 명시적 비용으로 ㉠, ㉡ 모두에 반영된다. ④ ㉠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이 ㉡에는 반영되기 때문에 ㉠에서 이윤이 발생하더라도 ㉡에서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에 이익이 발생한다면 ㉠에도 항상 이익이 발생한다.

## 2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는 제시문의 <표>와 비교할 때, 총수입과 고정비는 일정하나 변동비에 해당하는 재료비가 200만 원 줄었다. 4문단에서 투입된 총비용이 줄면 손익분기점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므로, 2015년의 손익분기점은 2014년에 비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경제학적 이윤을 따졌을 때 철수는 2014년 600만 원 손해를 보았다고 했으므로, 재료비가 200만 원 줄어든 2015년의 경제학적 이윤을 따졌을 때 철수는 400만 원 손해를 본 것이다. ③ 직원 인건비, 대출 이자, 세금이 고정비에 해당하는데 2014년과 2015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고정비로 지출한 금액은 동일하다. ④ 2014년 4,600만 원에서 2015년 4,800만 원으로 회계학적 이윤이 200만 원 증가한 것은 재료비를 줄였기 때문이다. 재료비는 변동비에 해당한다. ⑤ 직원 인건비, 대출 이자, 세금은 고정비에 해당한다.

## 26.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의 '투입'은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를 필요한 곳에 넣음.'의 의미이다.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를 밖으로 내보냄.'의 뜻을 지닌 단어는 '유출'이다.

**\*\* 과학 \*\***

□ 출전: 이광연, <이광연의 수학 블로그>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종이를 반씩 접어 나가면, 접힌 종이의 넓이는 줄어드는 반면 접힌 종이의 두께와 접힌 모서리에 생기는 반원의 호 길이의 합은 늘어난다.

**2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종이를 세 번 접었을 때, 접힌 모서리에 생기는 가장 큰 반원의 호 길이( $4\pi t$ )는 두 번 접었을 때 모서리에 생기는 반원의 호 길이의 합( $4\pi t$ )과 같다.

① 접힌 모서리에 생기는 반원의 호 길이의 합( $14\pi t$ )과 접힌 두께( $8t$ )는 같지 않다. ② 접힌 모서리에 생기는 반원의 호 길이가 종이의 길이인  $L$ 보다 더 클 수는 없다.  $L$ 보다 더 크면 종이 접는 것이 불가능하다. ③ 호 길이가  $\pi t$ 인 반원의 수는 3개로 가장 많다. ④ 접힌 모서리에 생기는 가장 큰 반원의 호 길이( $4\pi t$ )가 가장 작은 반원들의 호 길이의 합( $3\pi t$ )보다 크다.

**29. [출제의도] 글의 핵심 개념 이해하기**

종이를 접을수록 접힌 종이의 두께와 모서리에 생기는 반원의 호 길이의 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종이를 계속 접기 위해서는 종이의 길이가 이 둘의 값보다 길어야 하는데 종이의 길이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불가능하다.

**\*\* 현대시 \*\***

□ 출처: (가) 백석, <선우사>  
(나)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30.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의 화자는 맑고 청정한 곳에서 자란 ‘우리’는 공통적으로 욕심이 없고 ‘착하’고 ‘정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속성을 ‘희여졌다’와 같은 흰색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의 화자는 ‘흰밥’과 ‘가재미’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낸다. ③ (가)는 반찬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날 뿐, 상승 이미지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그릇’이라는 말을 통해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화자의 깨달음이 나타날 뿐, 하강 이미지와는 상관이 없다. ④ (가)에는 ‘우리들은 ~ 좋구나’에서 영탄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나)에는 영탄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이 없다. ⑤ 수미상관이란 시의 첫 연이나 행을 끝 연이나 행에 다시 반복하는 것인데, (가)와 (나) 모두 이와 관련이 없다.

**31.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D]에서 화자는 외롭지 않고, 누구도 부럽지 않으며, 가난해도 서러워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한다. ‘없다’, ‘없다’는 부정 표현이지만 [D]에는 화자의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흰밥’과 ‘가재미’를 친구로 생각하고, 함께 있기에 비록 가난하지만 서럽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다고 여긴다.

① [A]에는 ‘밝은 나조반’, 즉 밥상에 ‘흰밥’과반찬인 ‘가재미’와 화자인 ‘나’가 둘러 앉아 있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② [B]에서 ‘나’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사물인 ‘흰밥’, ‘가재미’와 대화를 나눌 것 같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애정과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③ [C]의 3연에서는 ‘가재미’, ‘흰밥’, ‘나’가 자란 공간의 특성이 제시되며 ‘욕심이 없음, 착하다 착함, 정갈함’이라는 공통점이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 되고 있다. ⑤ [E]에서 화자는 ‘흰밥’, ‘가재미’에 대한 애정과 동질감을 바탕으로 ‘세상’과 거리를 두어도 좋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2.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㉞에서 화자는 어머니의 말에는 당신의 ‘삶’과 ‘사랑’이 담겨 있지만 ‘나’는 어머니와 달리, 삶에서 우러난 진정성이 담겨 있는 말로 시를 쓰고 있지 못함을 반성하고 있다.

② 화자는 어머니가 물을 담아 오신 ‘그릇’을 보며 어머니의 ‘그릇’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따뜻함이 담겨 있는 것임을 깨닫고 있다. ⑤ 화자는 시인이라면 언어에

자신의 삶, 사랑 등의 가치를 담아내어 시를 써야 하는데, 자신은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고전시가 \*\***

□ 출전: (가)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나) 허난설헌, <규원가>

**33.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오리오’, ‘-니까’, (나)는 ‘-르까’, ‘-하랴’, ‘-인가’, ‘-르쏘냐’ 등의 물음 형식을 통해 임과 이별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① (가), (나) 모두 시적 공간이 변화하지는 않는다. ③ (가)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④ (가)에는 독백체와 말을 건네는 방식, (나)에는 독백체만 사용되었다. ⑤ (가), (나) 모두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는 있으나, 임을 만나려는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은 화자가 자신이 아름답던 젊은 시절이 빨리 지났다고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에서 화자는 임과 함께하는 ‘오늘 밤’이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인식하여 그 시간을 지연하고 싶어 한다. ㉡에서 화자가 ‘열두 때’, ‘서른 날’의 시간을 길고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임이 없기 때문이다. ㉢에서 화자는 임이 부재하기 때문에 꽃 피고 새 잎 나는 좋은 시절인 봄이지만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3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는 아무런 걱정 없이 봄바람에 웃고 있는 대상으로, 임의 부재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된다.

**\*\* 고전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황새결승>

**36.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및 태도 파악하기**

‘따오기’는 ‘황새’에게 미리 뇌물을 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알고 말하는 상황이므로 겸손하다고 볼 수 없다.

① 부자는 ‘관전 발악’이라 해서 처벌 받을까 두려워 송사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 분해하고 있다. ② 관원은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저놈의 말을 들으면 남들이 보는 눈이 걱정’되어 거짓으로 꾸짖고 있다. ③ 황새가 따오기의 소리가 ‘상성’이라고 판결하는 것은 그에게 받은 뇌물 때문이다. ⑤ 피꼬리는 자신의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를 누가 아름답다 여기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자신의 소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37. [출제의도] 작품의 구조 파악하기**

(나)의 판결 이유는 (가)와 마찬가지로 청탁 때문이다. (나)는 (가)의 상황을 빗대어 비판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지 (가)를 통해 (나)의 판결 이유가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① (가)는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친척의 요구에서 비롯된다. ③ (가)의 송사 결과에 억울함을 느낀 부자가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④ (가)에서 송사의 원인은 돈이지만 (나)에서는 ‘최고의 소리’이다. ⑤ (가)에서는 친척이 관원에게 준 뇌물이, (나)에서는 따오기가 황새에게 준 뇌물이 송사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38. [출제의도] 인물의 의도 파악하기**

부자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관원들에게 무안함을 주기 위해 새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의 의도는 송사와 관련된 형조 관원들의 부패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9.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파악하기**

[A]에서 황새는 피꼬리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나 따오기에게 받은 뇌물 때문에 억지 논리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황새의 태도를 평가하는 말로는,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을 합리화함.’을 뜻하는 ‘견강부회’가 적절하다.

②는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을, ③은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④는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함.’을, ⑤는 ‘본보기가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한자성어이다.

**\*\* 현대소설 \*\***

□ 출전: 주인석, <사잇길로 접어든 역사-소설가 구보씨의 하루2>

**40.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A]의 서술자는 소설에 대한 고민, 변해버린 친구에 대한 씩씩함 등 구보의 내면도 제시하면서 ‘구보씨는 참 우스운 사람이다.’와 같이 구보에 대한 평가도 드러내고 있다.

**4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K는 구보에게 H의 출판사에서 낸 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① K는 구보에게 H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해준다. ② ‘구보 아냐. 오래 간만인데.’라는 대사를 통해 두 사람이 오랜만에 결혼식장에서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H가 돈을 번 사실에 구보는 ‘벌어먹을. H가 돈을 벌었다네.’라며 H의 떡살을 잡고 묻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K는 H가 성공해서 사람들이 H의 결혼식에 많이 왔다고 생각한다.

**42. [출제의도]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판단하기**

<보기>에는 문인들조차 황금에 열광하는 상황이, [B]에는 소설가의 글보다 자본가에 관한 책이 인기를 얻는 상황이 나타난다.

① <보기>에는 ‘총독부’, [B]에는 ‘독재 정권’이라는 정치적 현실이 나타났으나, 이에 맞서는 문인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보기>에는 문인들이 황금을 좇는 모습이 드러나지만, <보기>와 [B] 모두 현실 타협적인 글쓰기의 이유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B]에는 성공한 자본가의 책에 밀리는 문인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나, <보기>에서는 자본가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⑤ <보기>에는 문인들도 시류에 편승하여 물질을 추구하는 모습이, [B]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설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43. [출제의도] 구절 의미 파악하기**

구보는 세속적 가치를 좇는 H와 친구들의 모습에 실망하고, 이들과 결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구보가 친구들과의 감정을 교류하며 위안을 얻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K가 증권이 한물가서 보험을 한다는 것으로 보아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③ 구보는 H가 돈을 벌어서 H의 결혼식에 많은 사람이 ‘꼬여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구보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희곡 \*\***

□ 출전: 오영진, <정직한 사기한>

**4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사원 갑’과 ‘사원 병’은 ‘청년’ 때문에 지폐 위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청년’을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청년’을 ‘동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 ‘청년’은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씨’를 부르며 ‘아씨’는 거짓말을 안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감상하기**

[B]에서 ‘청년’이 위조지폐로 양복을 구매하려 한 일은 ‘사복’의 말을 통해 제시되고 있을 뿐, 무대 공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A], [C], [D], [E]는 모두 무대 공간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 일이다.